

천진시 당고구 조선족 로인들

# 문화의 매력과 활력으로 아름다운 풍경선 그린다



천진시 빈해신구 화남사회구역에서 무료로 제공한 활동실에서 가야금 연습을 하고 있는 로인들

천진시 빈해신구 화남사회구역에는 특별한 조선족 단체가 하나 있다. 그들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 매력과 활력으로 화남사회구역에서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으며 자신들의 후반생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화남사회구역의 민족단결진보와 다문화 사회구역 건설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진시조선족로인협회 당고분회의 로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구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풍부해졌고 또 사회구역을 대표하여 천진시에서 조직하는 여러 대형 공연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고분회의 가야금연주단은 이미 우리 사회구역의 브랜드로 되어 사회적 호평을 받고 있다.”고 천진시 빈해신구 화남사회구역의 문예책임자 오우침이 소개했다.

“오늘날 당고분회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화남사회구역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천진시조선족로인협회 당고분회의 박영춘 회장이 말했다.

당고분회 설립 초기에 회원들이 소속되어있는 사회구역에서는 음력설과 같은 명절이면 당고분회 회원들을 초청해 무용이나 노래를 선보이게 했는데 매년 연습을 하려고 하면 활동실이 없어 항상 인적이 드문 농촌이나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해야만 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료해한 화남사회구역에서는 우리에게 무료로 200 평방미터에 달하는 활동실을 제공했다. 그게 벌써 12년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걱정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김순옥로인이 이야기했다.

화남사회구역의 도움으로 당고분회는 십여년간 이 장소에서 수많은 문예

연습과 활동을 조직할 수 있었고 많은 새로운 종목들을 창작, 연출할 수 있었으며 이 장소를 계기로 사회구역의 여러 민족들과의 교류도 더 빈번해지고 관계도 더 친밀해졌다.

오우침은 “당고분회는 화남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의 달 등 각종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선족 로인들의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화남사회구역에 거주하는 로인들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천진시 빈해신구 화남사회구역과 긴밀히 손잡고 해마다 사회구역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족의 노래와 춤으로 기타 민족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화남사회구역이 ‘전국 민족단결진보건설활동 시범단위’ 칭호를 수여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01년 봄에 설립된 당고분회는 지난 20여년간 150여차례의 공연에 참여했고 2006년 목단강에서 열린 중국조선족민속타악기 초청경기에서 받은 은상을 시작으로 2014년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린 전국 제3회 로인예술축제에서 <삼보춤>과 <농악무>가 특등상, 2019년 한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중한 문화예술교류회의에서 가야금명창이 1등상을, 2020년 1월 북경에서 열린 ‘매력 중국행’ 대형 TV 출연 시리즈에서 가야금연주단의 공연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후로 여러가지 상들을 수상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기간에 당고분회는 정부와 기업, 가가와 사회구역, 민간단체에서 조직한 수십차례의 행사에 참가해 광범한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현재 당고분회의 가야금연주단은 천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많은 연주단으로 부상했고 천진에서 조직하는 각종 대형 공연에 참여하느라 드바쁘다.

“우리 가야금연주단은 천진시의 음력설문예야회에도 출연했다. 그리고 천진시에서 크다 하는 공연장은 모두 가서 공연했다. 아마 우리와 같은 가야금연주단은 없을 것이다.”라고 김순옥로인이 자랑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옥로인의 소개에 따르면 당고분회의 가야금연주단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으며 특히는 화남사회구역의 도움이 많았기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천진시의 음력설문예야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화남사회구역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이고 그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당고분회 가야금연주단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여기 저기서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래일과 모래도 공연이 있어 지금 연습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짚어준 기쁨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공연을 할 것이다.”라고 박영춘 회장이 전했다.

조선족 단체로서 동북의 고향을 떠나 머나먼 천진시에서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건설과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는 당고분회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조직이 없이 단오나 같은 명절이면 저기 어느 공원에 가서 함께 보내자고 소문을 내면 하나둘씩 모여

졌고 또 만나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보냈다. 그게 우리 협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박영춘 회장이 설립 초기를 돌이켜보았다.

어떻게 하면 낯선 곳에서 더욱 보람찬 로년생활을 보내게 할까 고민하다가 2001년 봄 박수남, 손희태, 리상선, 조춘녀 등 로인들이 모여서 로인협회를 꾸려 로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자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서로 잘 아는 30여명 로인들을 모집하여 로인들이 가장 즐기는 조선족 노래와 춤을 배우며 즐기는 당고분회를 꾸렸다.

박영춘 회장의 말에 따르면 안락하게 로후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조선족 문화예술이 우리의 손에서 완전히 끊기면 안된다. 우리도 민족전통예술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당시의 당고분회 지도층의 영도하에 무용단을 조직했고 선생님을 모시고 밤낮이 따로 없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다. 춤을 출 줄 모르고 무대에도 올라본 적이 없는 로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들은 빈해신구개발구 조선족사회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무용단은 목단강에서 열린 중국조선족민속타악기 초청경기에서 <장고춤>을 선보여 은상을 탔다.

이 상은 로인들에 대한 큰 격려였다. 협회는 남성회원들로 관악대, 녀성회원들로 가야금연주단을 무였다. 지금까지 부딪치자 천진시조선족상회 당고분회와 빈해신구개발구 조선족기업인들이 서슴지 않고 전후로 30여만원을 기부하여 관악기, 드럼, 음향설비 등을 사주었다. 로인들은 악보를 볼 줄 모르던 선생님을 청해 배우고 악기를 다룰 줄 모르던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며 열심히 연습했다.

가야금을 만져본 적도 없는 가야금연주단의 20여명 회원들은 많은 학비를 내며 가야금 연주법을 배웠다. 평균 70세 고령이지만 민족악기를 배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선전한다는 깊은 의의를 가슴에 묻고 정열을 불태웠다.

1년간의 노력 끝에 관악대와 가야금연주단의 연주 수준이 크게 올라 빈해신구개발구에서 공연하던 데로부터 천진시 여러 조선족 사회단체 및 기타 성, 시에까지 가서 공연하게 되었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공연했다.

박영춘 회장은 “우리는 조선족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는 한편 당건설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당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세시대 본보기 로인으로 여성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7돐 경축 문예공연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풍부한 다채로운 문화생활과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정신풍모를 전시하기 위해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최하고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주관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7돐 문예공연이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3층 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의 초청을 받고 협회의 전임 회장, 부회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1987년에 설립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는 지난 37년 동안 시종 ‘로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취지로 로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을 주관단위로 줄곧 로인들의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로인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예술무대를 제공했다.

공연에 앞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전홍수 회장은 “오늘 우리는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7돐을 맞이했다. 그간 우리는 로인들에 관한 정책을 깊이있게 관철해왔고 여러 분회에서 자신들의 협회를 로인들의 즐거운 활동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문예공연의 형식으로 당과 조국의 위대한 성과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사전에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로인협회의 11개 분회와 군중예술관 그리고 예술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무용, 합창 등 공연들을 알심듬어 준비했고 16개의 정제로운 공연 종목들 통해 세시대 로인들의 정신풍모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었다.

공연은 군중예술단의 <환고신시대 (欢歌新时代)>를 시작으로 종목마다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공주협회에서 준비한 <그네 타는 처녀>는 청년들도 무척하게 할 만큼 로인들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쌍포로인협회에서 출연한 <나의 조국>은 은은한 노래소리로 조국에 대한 로인들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표현했으며 관중구에서 준비한 군인 행진종목은 정연하고 일정한 동작으로 로인들의 강인함과 애국심을 로인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예술무대를 제공했다.

공연에 앞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전홍수 회장은 “오늘 우리는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7돐을 맞이했다. 그간 우리는 로인들에 관한 정책을 깊이있게 관철해왔고 여러 분회에서 자신들의 협회를 로인들의 즐거운 활동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문예공연의 형식으로 당과 조국의 위대한 성과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사전에 다

/ 오건 류향휘 기자

## 대련시 조선족들 새 중국 창건 75돐 경축 게이트볼경기 개최



9월 30일, ‘대련시 조선족 새 중국 창건 75돐 경축 게이트볼경기’가 대련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에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추천한 심판원과 감독, 8개 게이트볼팀의 운동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료해에 따르면 6만여명의 조선족들이 제2의 고향인 대련시에서 해마다 ‘만남, 소통, 발전’을 리념으로 등산팀, 골프팀, 축구팀, 게이트볼팀 경기를 조직해 단합을 도모하는데 이는 당시 관련 지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개막식에서 대련시조선족게이트볼진목회 권영호 회장은 “게이트볼경기의 개막을 열렬히 축하한다. 게이트볼경기는 잠시이지만 우리의 우정과 단합은 영원할 것이며 앞으로 게이트볼경기뿐만 아니라 제반 사업에서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루 동안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금보신구 거린게이트볼팀이 우승을, 려순 월랑만팀이 2등을, 금주 1팀이 3등을 차지했다. / 리심민특약기자

9월 26일,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최한 ‘민족전통체육 주제 개방일’ 행사가 사평시 철동구 흥석류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민족단결의 주선물을 노래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 동력을 응집하자’로 전사회적으로 중화민족공통체식을 확고히 다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 왕비(王菲) 주임을 비롯해 철동구, 철서구 관련 부문 관계자와 길림사범대학 진주별(珍珠球) 전승기지,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와 사회각계 군중 등 약 260여명이 당일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리춘

## 사평에서 울려 퍼진 “모야!”, “웃이야!”



식 회장의 웃음이 도구와 놀이 방법에 대한 알찬 소개는 행사에 참가한 관중들의 호기심을 한층 높여줬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민족단결의 주선물을 노래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 동력을 응집하자’로 전사회적으로 중화민족공통체식을 확고히 다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 왕비(王菲) 주임을 비롯해 철동구, 철서구 관련 부문 관계자와 길림사범대학 진주별(珍珠球) 전승기지,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와 사회각계 군중 등 약 260여명이 당일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리춘

식 회장의 웃음이 도구와 놀이 방법에 대한 알찬 소개는 행사에 참가한 관중들의 호기심을 한층 높여줬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민족단결의 주선물을 노래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 동력을 응집하자’로 전사회적으로 중화민족공통체식을 확고히 다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 왕비(王菲) 주임을 비롯해 철동구, 철서구 관련 부문 관계자와 길림사범대학 진주별(珍珠球) 전승기지,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와 사회각계 군중 등 약 260여명이 당일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리춘

/ 김홍철특약기자

##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국경절 맞아 ‘홍색가곡’ 열창

9월 29일,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맞으며 경치가 수려한 장백천년에서풍경구 봉사대청활동중심에서 ‘홍색가곡을 함께 부르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0여명의 회원들이 위대한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고서는 아침 일찍부터 약속 장소에 모였다.

이번 활동은 대합창 <조국을 노래하네>로 멋지게 서막을 열었다. 이어 홍색가곡 <남니만>, <유양하>, <모주석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네>, 남성소합창 <사격하고 돌아오네>와 합창 <영웅을 노래하네>, <우리는 큰길로 걸어간다>, 녀성소합창 <호수는 파도치네> 등 혁명가곡과 홍색가곡을 목청껏 부르며 위대한 중국공산당과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열정적

으로 구가했다.

홍색가곡 <군민대생산>, 관악합주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등 종목은 새 중국 창건 75년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자랑찬 성과를 열정적으로 노래하였으며 당의 영명한 영도하에 단결분투하고 개척진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백현 조선족 로인들의 말하듯 정신품모와 위상을 과시하여 장내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여러 분회에서는 또 총협회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3개 소조로 나누어 장백천년에서풍경구의 관람대에 올라 장백현의 아름다운 가을철 경치와 압록강변의 이국풍정을 관람했다. 이어 조선족 전통민속놀이인 웃놀이 경기를 조직해 회원들로 하여금 국경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했다. / 최창남, 신영호 (申永虎)

이번 활동은 대합창 <조국을 노래하네>로 멋지게 서막을 열었다. 이어 홍색가곡 <남니만>, <유양하>, <모주석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네>, 남성소합창 <사격하고 돌아오네>와 합창 <영웅을 노래하네>, <우리는 큰길로 걸어간다>, 녀성소합창 <호수는 파도치네> 등 혁명가곡과 홍색가곡을 목청껏 부르며 위대한 중국공산당과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열정적